

# 아테나이의 참여 민주정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허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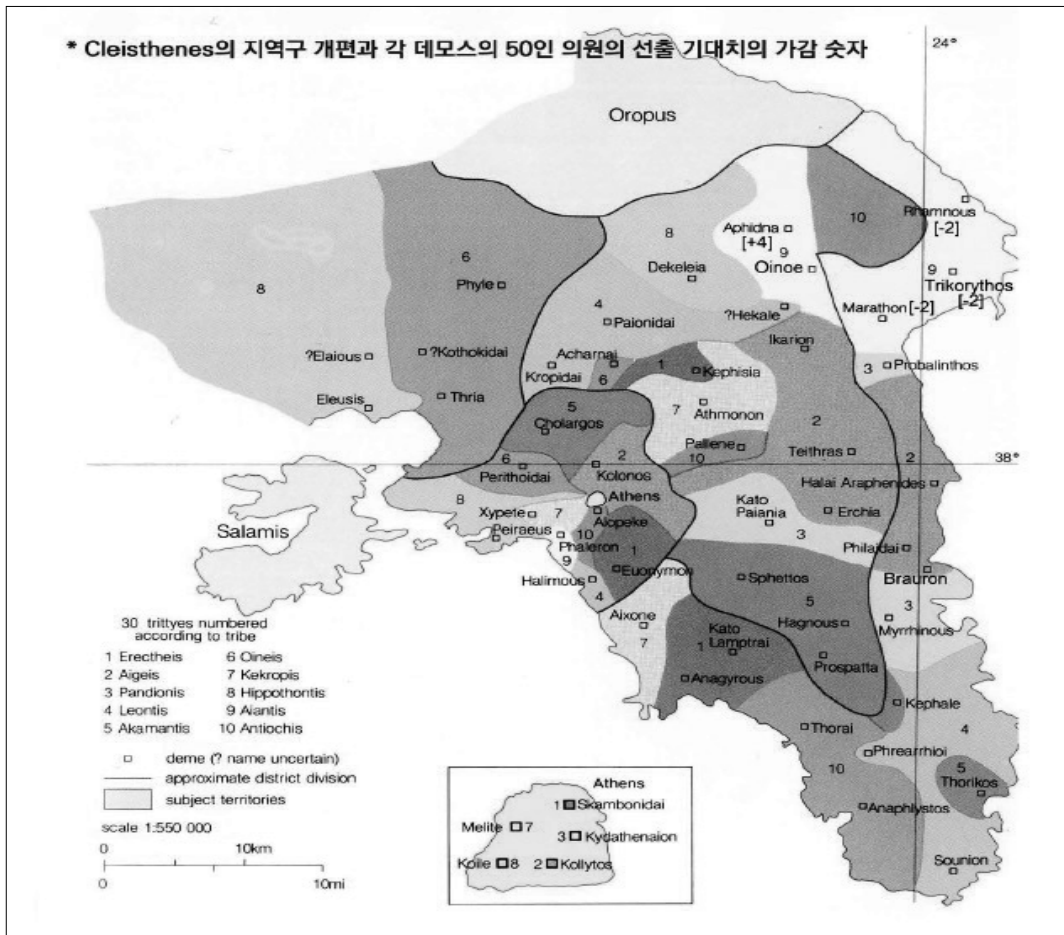
헤로도토스는 클레이스테네스를 아테나이 민주정의 아버지로 불렀다. 기원전 508년 이전에는 혈통에 입각해 프라트리아 성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아테나이 시민이 되었지만, 클레이스테네스는 지역의 최소 단위인 데모스에 이름을 올리면 아테나이 시민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정치의 무게가 혈연에서 지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임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솔론의 개혁 이후 아테나이는 페이시스트라투스와 그의 두 아들에 의해 참주정이 실시된다. 이들은 모두 아티카 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마라톤 출신이다. 그런데 아티카 반도의 중앙부에 있는 알크마에온 가문 출신의 클레이스테네스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그의 정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사고라스였는데, 이 자는 바로 마라톤 근방의 이카리온 출신이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티카 반도의 동해안 출신으로서 옛 참주인 페이시스트라투스의 막강한 정치적 후광을 등에 업고 나온 이사고라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끝에 내놓은 것이 아테나이의 대지역구 개편이다.

그는 우선, 아테나이의 행정 단위인 4개의 혈연적 부족을 10개의 대지역구(phylai)로 개편한다(이하 지도 참조). 그리고 각각의 대지역구를 시내, 내지, 해안의 3개 중지역구(trytties)로 나눈다. 그리고 30개의 중지역구는 총 139개의 데모스(demos)로 구성한다. 바로 여기서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 천재성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본래 클레이스테네스는 대지역구 개편과 더불어 500인회도 창설한다. 이 행정기구는 10개의 대지역구에서 각각 50인회(prytanies)를 선발하여 구성되는데, 각 prytany가 연간 1/10씩 행정을 직접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동해안의 대지역구들에서 이사고라스파가 대거 50인회로 진출하면 클레이스테네스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그는 기가 막힌 정치 술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우선, 지도를 보자. 동해안 북부에는 Marathon을 중심으로 Oenoe, Trikorythos 그리고 Probalnithos가 몰려 있는데, 이들은 종교적 축제를 통해서 동해안 정치 세력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Aiantis 대지역구에서 Probalnithos를 떼어 내어 남쪽으로 Aigeis 대지역구를 뛰어 넘어 아무 연관도 없는 Pandionis 대지역구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들의 종교/정치 세력의 약화를 노렸다. 또 다른 사례로서, 원래 Ikarion과 Hecale는



Hecalesia 축제로 뭉쳐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들을 분리시켜 Hecale를 Aigeis 대지역구에서 떼어내 Leontis 대지역구에 갖다 붙였다. 각개 격파 전법을 쓴 것이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또 각각의 prytanies에서 자파의 과반수 확보를 노려 또 다른 정치적 수완을 보인다. 원래 500인회는 demos의 규모와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demos에서 선출될 의원의 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115 demos 비교를 해보니, 75.5%는 기대되는 의원 수와 실제의 수 사이의 차는 거의 없다. 그러나 나머지 24.5%는 2, 3, 4명의 차가 난다. 예를 보자. Aeantis 대지역구의 해안 demos 중 3개, 즉 Marathon, Rhamnous, Trikorythos는 기대숫자보다 실제 의원의 수는 2명이 적었는데, 이는 페이시스트라투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클레이스테네스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대지역구인 Aeantis의 내지 Trittyies의 유일한 데모스인 Aphidna는 기대 숫자보다 4명이나 많았는데, 이곳은 참주인 Hipparchus의 암살자인 Harmodius와 Aristogeiton의 배출지로서 반(反)페이

시스트라투스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다.

클레이스테네스는 10개의 대지역구 개편으로 많은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되었는데, 10인의 archon(지배자)도, 10인의 strategos(장군)들도 각각의 대지역구에서 1명씩 총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내, 내지, 해안의 3개의 중지역구 중 아테나이 시내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점이 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도 모자라 도편추방법(Ostrakismos)을 제정하여 6,000표 이상을 얻는 정치적 요주의 인물을 10년간 외유케 하도록 했다. 이는 ‘그 사람은 안 돼’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선거인 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천지인(天地人)을 다함께 알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주의(regionalism)의 이해 없이 아테나이의 직접 민주정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천지인의 조화 속에서 이상적인 국가, 법률, 정치가가 탄생하기를 기원하는 이유도 인간의 생의 목적인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가옴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